평생교육 실행교육기관으로서의 개방형 대학의 역할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2021년 7월

장 혜 경

목 차

1 국외훈련 개요 ····· 2

2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 3

3 훈련성과보고서 ····· 6

Ⅰ. 서론 ····· 6

Ⅱ.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 11

1. 평생교육의 필요성 ····· 11

2.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 15

Ⅲ. 주요국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 ····· 18

1. 독일 ····· 18

2. 영국 ····· 24

3. 덴마크 ····· 31

Ⅳ. 호주의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 ····· 37

1. 호주의 평생교육 필요성 및 방향 ····· 37

2. 평생교육 실행기관 ····· 39

3. 호주의 직업능력개발 ····· 45

Ⅴ.시사점 및 결론 ····· 49

1.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49

2. 결론(발전방안) ····· 53

※ 참고자료 ····· 63

국외훈련 개요

1. 훈 련 국 : 호주

2. 훈련기관명 : LGPA(Local Government Professionals Australia)

3. 훈련분야 : 도시행정 / 기획

4. 훈련기간 : 2019. 8. 6 ~ 2021. 8. 5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장 혜 경	파견연도	2019
훈련분야	도시행정 / 기획		
훈련과제	개방형 시민대학 및 직업능력개발 연계 연구		
훈 련 국	호주		
훈련기관	LGPA(호주지방정부 고위관리자 연합)		

보 고 내 용

제 목	평생교육 실행기관으로서의 개방형 대학의 역할과 직업능력개발의 연계	보고서 매수	69

☐ 서론

○ 평생학습은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고 이제는 실제적인 교육의 현장에 참여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야할 시기가 도래됨.

○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실마리를 평생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 평생학습과 인력개발은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단순히 학습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교양과 지식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부여와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이 필요

○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인적자원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직업능력 개발은 통한 숙련된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주요 국가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

○ 2015년 세계 최저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생산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고민하던 중 은퇴한 세대들을 생산인구로 편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주민 정책을 통한 인구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기반이 바로 시민대학임

○ 영국의 평생교육정책이 책임감과 더불어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과 성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고용인력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발하는 정책으로 집중되고 있

○ 덴마크의 시민대학은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음

□ **호주의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

○ 호주는 평생교육 정책이 따로 없는데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의 시작이고 죽을때까지 은퇴후에도 끊임 없이 학습한다는 것인데, 호주의 교육의 특징은 직업훈련과 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학습할 기회를 주고, 누구나 원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옴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의 개념은 '기술 및 계속교육'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호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규모의 평생학습 기관으로, 가장 핵심적인 평생교육 역할 수행 기관

○ 호주의 직업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는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훈련이 잘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직업교육을 통해 회사와 학습자들의 원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자격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여 학습자들이 훈련에 집중하여 과정을 이수한 후, 호주 기업이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여러 직업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데, 이 자격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물론 고용자(주)의 입장에서도 자격의 품질과 일관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음

□ **시사점 및 결론**

○ 교육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수요를 파악하여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의 참여율이나 기관이 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료 후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수료증 등 인정해주는 체제 확립 필요

○ 중앙과 지역단위 간의 평생교육 훈련 업무 연계가 정착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시설이나 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 민간 주도 시민대학등 연계를 통한 시민대학 및 교육훈련 활성화 필요

○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역할 강화 및 협력관계 구축

평생교육 실행교육기관으로서의 개방형 대학의 역할과 직업으로의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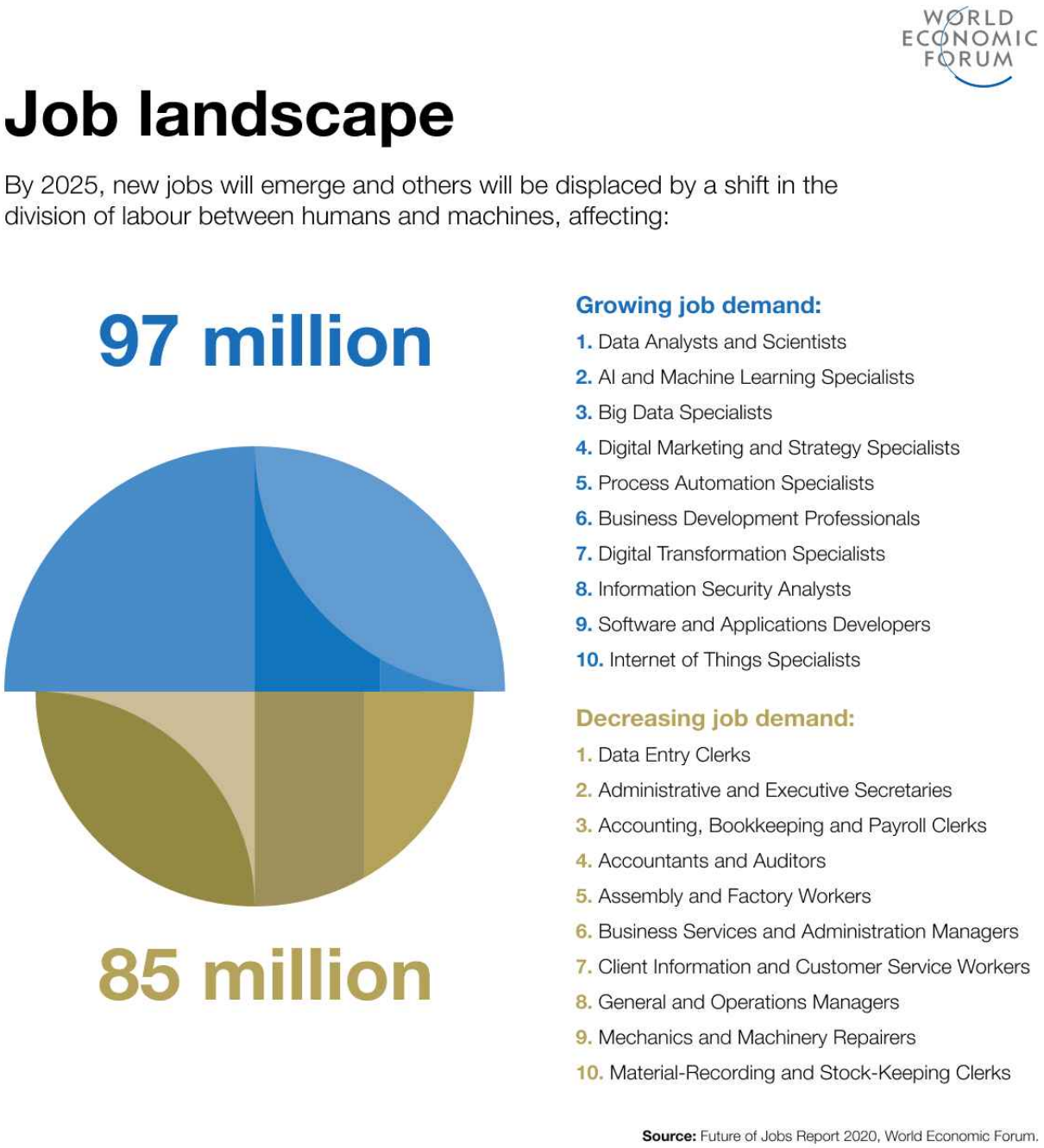
Ⅰ. 서론

○ 평생학습은 더이상 실행하기 어렵거나 막연한 것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고 이제는 실제적인 교육의 현장에 참여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학습을 통해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갈등 증폭 등 불안정하고 급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지속 성장·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이상 지나친 일이 아니다.

- 글로벌 경제와 세상의 변화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때로는 역부족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려면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학습을 해야 할 시기이고 이제는 필요가 아닌 필수 학습의 시대인 것이다. 또한, 수명의 연장으로 인생 60 퇴직 이후에 집에서만 머물기에는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다. 이제는 학습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이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토록 학습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응방안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도 빠듯한 상황 속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팬데믹이 2019년 말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COVID-19는 그리 쉽게 세계와의 작별을 고하지 않을 예정인 듯하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의 변화와 상황들이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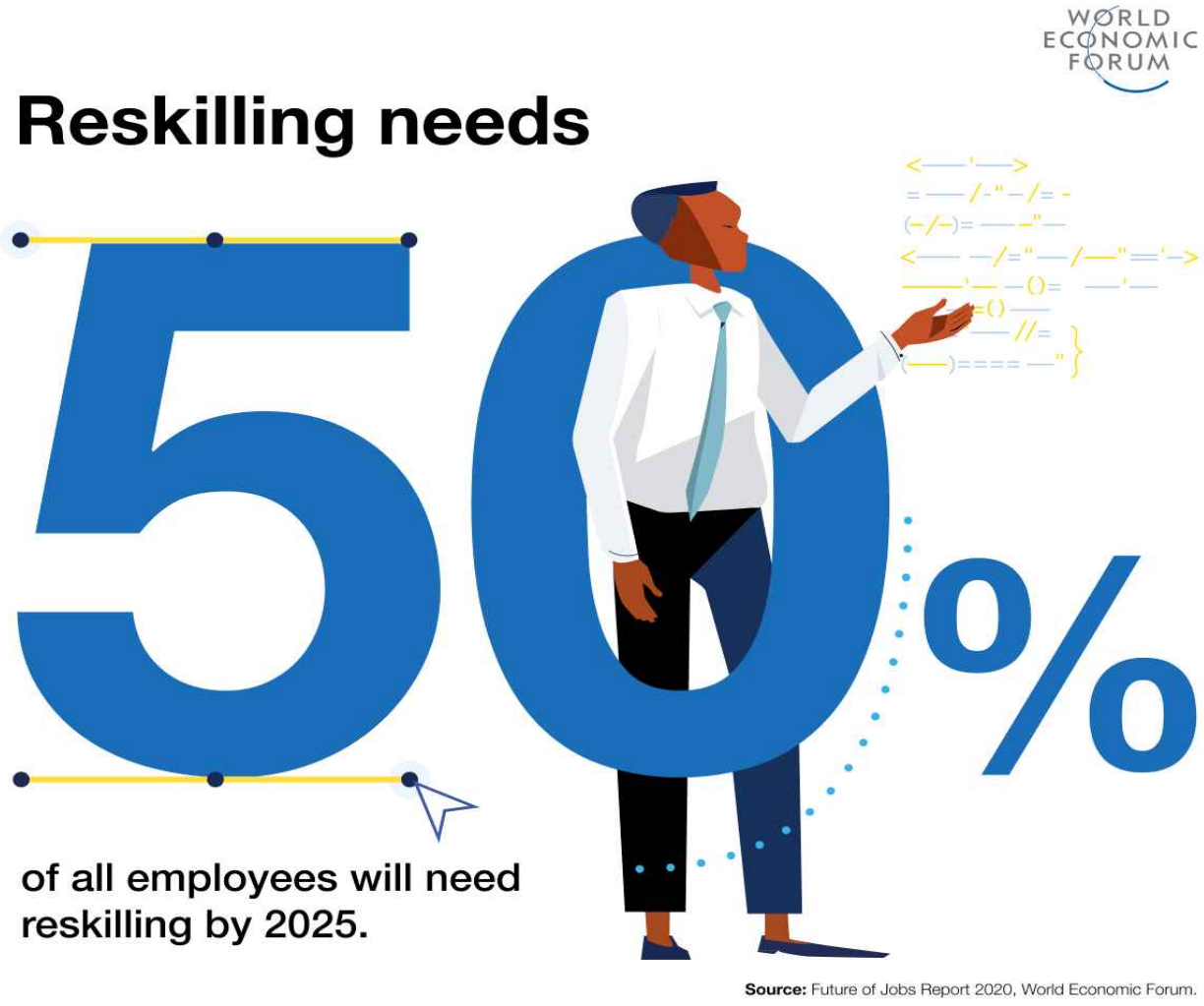
- 2020년 10월에 열린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5년까지 순수하게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반면에 로봇, 인공지능으로 인해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예측했다.



-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끊임없이 배워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배워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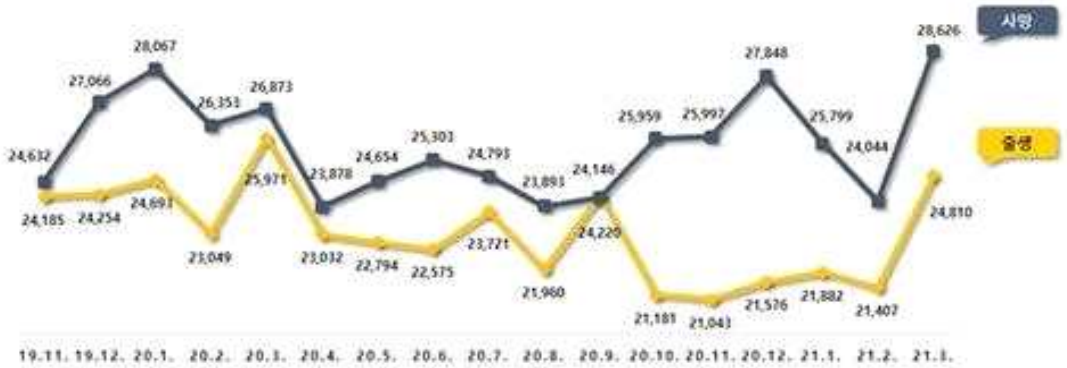
- 2025년까지 직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많은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격차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평균적으로 기업은 약 40%의 근로자가 6개월 이하의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즈니스 리더의 94%는 직원이 업무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유소년 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수는 2020년 기준 800만 명을 돌파하여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 또한 42.6세로 높아진 상황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의 사회참여 욕구 등으로 인한 평생학습 수요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 ’20.12월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를 넘어선 상황이며, 출생자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현황(’20.1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 출생(등록)자 및 사망(말소)자 동기대비 증감 현황 》

구분(명)	’11. 1.~’11. 3.	’20. 1.~’20. 3.	’21. 1.~’21. 3.
출생(등록)자 수	125,509	73,713	68,099
사망(말소)자 수	67,944	81,293	78,469

※ 출생(등록)자: 전년 동기대비 5,614명(△7.6%) 감소, 10년 전 동기대비 57,410명(△45.7%) 감소
※ 사망(말소)자: 전년 동기대비 2,824명(△3.5%) 감소, 10년 전 동기대비 10,525명(15.5%↑) 증가

○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 구성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노인 부양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 활력의 저하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대간 소득재분배, 의료비용의 증대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나,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고령자들이 고령화 시대에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오래 전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또한 고령자들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거나 대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고령사회 속에서 점점 더 부각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에 미칠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평생학습을 토대로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평생학습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 직업으로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또한, 평생학습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 속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사회적 갈등해소의 근복적인 대안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도시의 경쟁력은 평생학습과 직결되고 세계 각국은 그 무엇보다 평생학습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결국 평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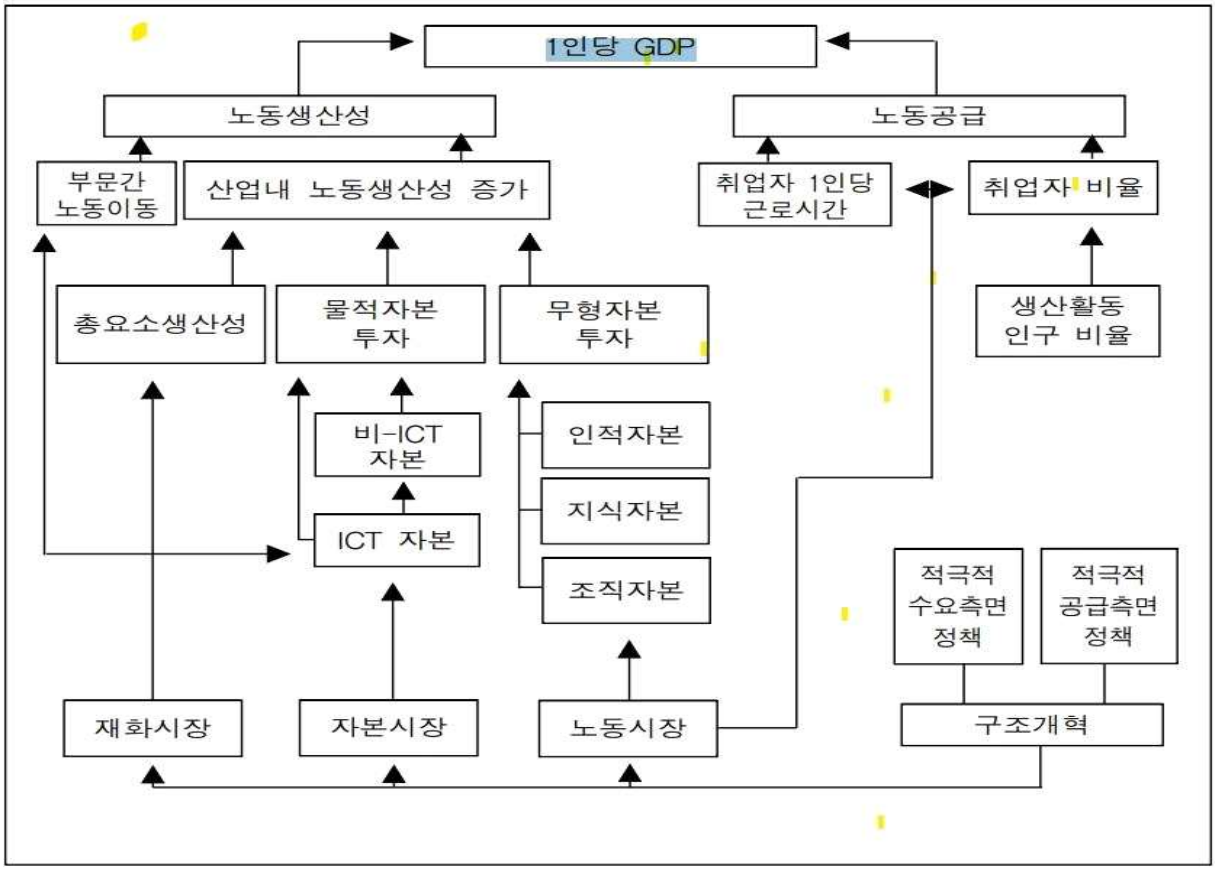
학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봉합은 물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성장 기회임을 또한 주요국가의 사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1. 평생교육의 필요성

1) 노동시장의 변화

○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노인의 인구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생산활동 인구 비율이 줄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자들의 생산활동 참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자료 :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방하남, 2004)

- 노동시장의 변화는 결국 중장년층이 조금 더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은퇴를 앞둔 이들이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게 된다. 평생학습이 과거에는 학습을 통해 교양과 지식을 쌓고 인문학적 소양 확대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었다면, 현재와 미래에는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능력과 새로운 기술 훈련을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평생학습이 더 확대될 것이고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회사나 기업이 원하는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민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중장년층의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평생학습을 추진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평생학습이 발전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재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인재를 개발하는 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가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중장년층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습할 기회를 지원하고, 기업은 고령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양질의 평생학습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조금씩 다양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은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 주도

적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재정지원을 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학습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평생학습이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을 마친 후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틀을 만들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평생학습이나 복지가 발전한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는 학습과 고용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혁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걸음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문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는 간접증거인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평생학습이 필요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한가지 더 필요한 것은 고령층 등 학습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특히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중장년층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새로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될 인력에 맞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정보와 직업정보, 진로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선진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우수한 사례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 시민의식과 환경의 변화

○ 평생학습은 더는 의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학습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 직업으로 연계하려는 노력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요즘은

“덕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서 직업으로 연계되는 장인으로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일자리와도 연계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말해주듯이 요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SNS나 유투브 등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고 1인 크리에이터의 길을 가는 N잡러 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아이부터 고령의 노인들까지도 동참하며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폐해에 대해 다양한 지적들도 많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폐해만을 지적하고 있기에는 세상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너무 쉽게 도태될 수 있기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사회의 균형과 소외됨을 방지하는 등 조화를 이루기 위해 평생학습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다.

○ 인문학의 열풍이 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인문학 그자체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개성을 찾아 능력을 개발하면서 삶의 가치와 행복,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또한 평생학습의 기본 의미이며 능력개발을 위한 디딤돌이다.

- 현대인들의 경쟁적 사회에서 지친 일상에 대해 영혼의 안식처를 찾기 위한 열풍으로도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계형으로의 삶에서 벗어나 의미를 찾아가는 것 또한 요즘 시대의 트렌드인 것이다.

○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되던 모든 행사나, 학생들의 학교 수업과, 여행 등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 수도 없고, 팬데믹 이후에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측 속에서 해결방안의 실마리 또한 평생학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맞닥뜨리고 빠르게 적응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반드시 눈뜨면 다니던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 메타버스나 온라인을 통해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찾아왔다.

-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것은 곧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도 그동안 진행해 온 학습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크게 확장해 나갈 것이다. 또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평생교육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소외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 다양한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영역이 더욱 다각화될 것에 대비하여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도 강조될 것이다.

2. 직업능력 개발의 필요성

1)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 직업 능력이란 특정 직업 또는 일반적인 직업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능력 개발이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 활동을 의미한다.(HRD 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2)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숙련된 인력의 요구

○ 세계는 지속해서 변화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력관리에 관심을 제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찾고 관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의 생사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있냐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기술과 지식이 없이 기업은 더는 성장하기 어렵고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기에 기업을 이끄는 것은 결국 지식노동자이고 그들의 역할이 기업을 좌지우지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숙련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이다. 우리나라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학습병행제,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인력자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시키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 고용의 양적인 면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고용하는 데 있어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 맞는 기술과 지식기반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의 필요

○ 훌륭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국가와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먼저 발전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호주는 직업훈련 전문학교가 있고 직업훈련을 위한 체계와 훈련을 마친 후 얻게 되는 자격증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되어 취업하게 되는데,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등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 TAFE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도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자격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과 민간기술 자격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절차나 인정의 문제가 취업에서 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자격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의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다.

-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훈련 활동을 평가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4)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평생교육은 1960년대 유네스코에서 새로운 학습의 패러다임으로 창출되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통합된 교육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08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유럽의 나라들로부터 발전해 왔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3대 평생교육 강국이라고 여겨진다. 그 나라의 거의 전 국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는 'Joy of Learning'이라는 교육철학을 통해 삶의 동반자로서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정부에서 거의 무료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아 학습할 수 있다.

- 앞으로 평생학습은 아마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듯이 우리 일상 속에 아

주 가까이 존재할 것이고, 이 평생학습을 통해 인력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도 이러한 평생교육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습 또는 직업훈련 등이 학습자 부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해결하여 실질적인 인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주요 국가의 평생교육과 교육기관

1. 독일

1) 평생교육 정책 방향

○ 독일은 평생교육이 발전된 선진 국가로서 오래된 전통은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독일의 평생교육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독일 평생교육의 핵심 기관인 독일국민대학(Duetsche Volkschuch Schule)은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 또한, 다양한 여러 단체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독일 평생교육의 정책을 이끌어간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 독일의 평생교육은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기구나 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로 협력하며 평생교육의 방향을 조정해가고 있는데, 독일의 평생교육은 시민대학을 통해 발전해 왔다.

○관할 기관 및 기능 (출처 :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코트라(2013))

관할주체	관할 기관	주요 활동
정부	각 지역 소재 연방노동청	직업심화교육 및 직업이전교육
연방주	각 연방주(자체 연방주법 적용)	자체 공공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지자체 내 시민대학 등	문화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활동
기타기관	노동조합의 이니셔티브, 독일교사협회, 대학총장회의, 독일경제연구소, 독일성인교육연구소, 독일 시민대학 연합 국제협력연구소	기관별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활동

2) 독일의 평생학습교육(시민대학)

○ 독일은 2015년에 출생률이 세계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생산연령인구의 점진적 감소로 인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노동인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퇴한 인구들 새롭게 노동인구로 편입하는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독일은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그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시민대학'이다.

○ 시민대학은 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의가 있고, 다양한 교육 실시는 물론 교양과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개발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학습을 통해 얻은 전문적 지식을 통한 공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독일의 시민대학은 16개 주에 걸쳐 1,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독일시민대학협회). 또한 시민대학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오고 가며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민자들을 위한 어학프로그램은 독일 전체 시민대학 강좌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독일 정부가 다문화 등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독일의 시민대학은 한국의 평생교육원과 같이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시민대학의 재정은 국가, 지방단체가 지원을 하므로 수강생의 부담은 크지 않고 강좌 또한 다양하다. 시민대학은 누구나 다닐 수 있기에 나이나 성별, 국적, 소득의 고저 등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독일은 시민대학을 통해 장년층과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평생교육과 교육훈련을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학습 기관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늘리고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역 학습관 등도 늘려나가는 등 독일의 시민대학 형태와 유사한 평생교육의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 시민대학의 교육내용

- 직업훈련과 교육은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 이를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 노동인구의 변화로 인해 독일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취하면서 퇴직자들의 생산인구로 재투입 등을 위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층 대상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애쓰고 있다.

  ·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컴퓨터 윈도우 사용법부터 앱 사용을 배울 수 있는 기초 강좌부터 컴퓨터 보안 관련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 조치 등에 대한 교육과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 인터넷 자료 검색 등과 같은 실질적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독일 시민대학에서는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있다. 시민대학 초기에는 역사나 정치, 경제나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주제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외국어나 교양, 사회문제는 물론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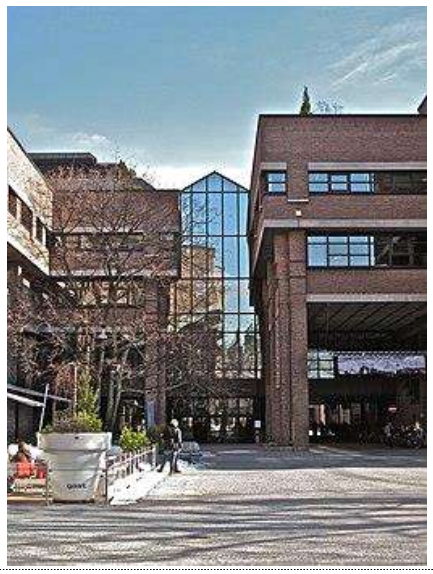
○ 독일의 주요 시민대학

❶ 뮌헨 시민대학

- 독일의 뮌헨 시민대학은 사회적인 이슈와 쟁점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뮌헨 시민대학의 강의와 프로그램은 학기마다 다르게 구성하는데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가 원하는 분야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내용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위주로 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매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그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다.

< Mu:nchner Volkshochschule, 뮌헨 시민대학 >



- 설　　립 : 1896년
- 위　　치 : 독일 뮌헨 시내
  ▸본부 및 23개의 분교
- 프로그램 : 19,000여개(다양한 주제와 형태)
  ▸주제 : 과학, 교육, 사회문제, 정치, 문화예술 등
  ▸형태 : 세미나, 워크숍, 포럼, 견학, 투어, 전시, 여행 등
- 강　　사 : 3,000여명의 프리랜서
- 수강인원 : 연 25만명('20.1월 기준 세계 최대)
- 운영원칙 : 개방성, 다양성, 접근성, 통합성

※ 홈페이지 : https://mvhs.de/

❷ 본 시민대학

- 본(Bonn) 시민대학은 1904년 설립된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이며, 시 교육의 중심 연구소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본 대학교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며 다양한 강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여름과 겨울 2학기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2,000여개가 넘는 강좌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주간과 야간,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뮌헨대학과 같이 지역사회의 이슈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평생학습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누구나 원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특히, 독일은 이민정책과 아울러 난민수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민자나 난민들이 독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언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Bonn Volkshochschule, 본 시민대학 >

- 설　　립 : 1904년
- 위　　치 : 독일 본
- 프로그램 : 매년 2회에 걸쳐 카다로그 게시
  - ▸분야 : 정치, 과학 및 국제, 외국어, 직업, IT 및 디지털, 문화 및 예술, 건강, 학습 여행 등
  - ▸형태 : 강의, 워크숍, 전시회, 온라인 수업, 포럼, 견학 등
- 수강인원 : 연 3만여명
- 운영원칙 : 개방성, 다양성, 접근성

※ 홈페이지 : https://www.vhs-bonn.de/

3) 독일 내 평생교육 성과(시사점)

○ 독일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독일기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독일 성인의 40% 가까이 평생학습에 참여한다고 한다(연방 교육연구부, 2011).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기업 내 평생교육이 개인들의 자발적 평생학습 참여에 비해 다소 높다고 한다.

○ 독일의 시민대학은 독일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할 환경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기초 교양과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독일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의구심이 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민대학에서 학습할 기회를 얻는데, 독일의 시민대학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에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이 독일 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평생교육에서도 기초 교양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직접 수강하는 인기 강좌라든지 다양한 언어권을 학습할 수 있는 언어 강좌,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의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토론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좌들의 질적인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 독일의 시민대학은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인문학 등 교양지식을 통해 '앎'이라는 것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학습을 통해 고용으로 연계되는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였지만 자기들의 과거사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나라로 인식된다. 이것이 바로 독일 교육의 철학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끄는 리더의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2. 영국

1) 평생교육 정책 동향

○ 유럽의 평생교육은 시작 초기에는 대부분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해 왔으나,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통해 국민들의 수준을 제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확대하여 모두가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인력자원 개발을 통해 평생고용의 가능성을 넓히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위해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 영국의 평생교육정책이 책임감과 더불어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과 성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고용인력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발하는 정책으로 집중되고 있다.

○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 경제 소외계층의 지원 및 영국 전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 대학들이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행 대학 재정지원시스템은 주로 전일제 학습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등록금 및 생활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자격을 자격 취득과정 참여·전일제 대비 1/4 이상의 학습 시간 등록자로 제한하는 등 일과 학습 병행을 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 등에 대한 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출처 The Guardian)

- 이러한 사유로 영국의 성인 학습자들은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등 학습 참여율도 낮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들은 교육과 학습에서 소외되는 불평등의 상황이 지속되었다.

-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습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중등이후교육(Post-16 education)에 대해 £4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숙련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중 £25억은 국가숙련기금(National Skills Fund), £15억은 직업훈련 교육기관 환경 및 시설개선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시설 설치 등에 쓰도록 하는 등의 투자를 통해 직업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애쓰고 있다.

○ 앞서 언급된 £40억 예산 외에도 신규 기술교육기관 건립에 £1.2억, T-레벨 운영에 £9.5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러한 예산 투자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질 높은 견습생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숙련기금(National Skills Fund) :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Conservatives)의 2019 총선 공약 중 하나

* 중등이후교육(Post-16 Education) : 영국의 의무교육은 만16세까지이며, 잉글랜드의 경우, 만18세까지 전일제 교육과정(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과정 또는 전문학교 진학), 견습(apprenticeship) 이나 연수과정(traineeship) 참여 또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와 병행하여 파트타임 교육 또는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함.

* T레벨(T-Level) :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잉글랜드의 새로운 직업교육 과정으로, 기존 대입 시험과정인 A레벨(A-Level)에 준하는 진로교육 과정으로 총 2년의 교육과정 중 3개월의 현장 직무실습이 포함되어 있음. 2020년 9월에 시작하는 건설, 디지털, 교육, 보육 관련 교육과정 외 회계, 미용, 공학, 혁신산업 분야 관련 22개 교육과정은 2021년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 연간 임금 총액이 300만 파운드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 총액의 0.5%를 걷어 청년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영국의 청년 고용 창출 확대 정책. 기업은 낸 세금만큼 바우처를 받게 되고, 견습생 고용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2) 영국의 평생교육의 다양성

○ 영국은 교육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며 또한 1969년 설립된 영국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은 전통적인 기존의 대학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수체제나 학습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 영국에서는 교육에 있어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본래의 취지처럼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장소도 구애받지 않는 대안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시스템 형태의 교육이 각 대학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은 이러한 원격교육기관이나 평생학습기관에도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❶ 텐트 시민대학(Tent City University)

- 텐트 시민대학(Tent City University)에서 보이듯이 글자 그대로 텐트에서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시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수개월간 자발적인 학습 등이 확대되면서 학교의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유명 작가를 초빙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 학교에 대해 입소문을 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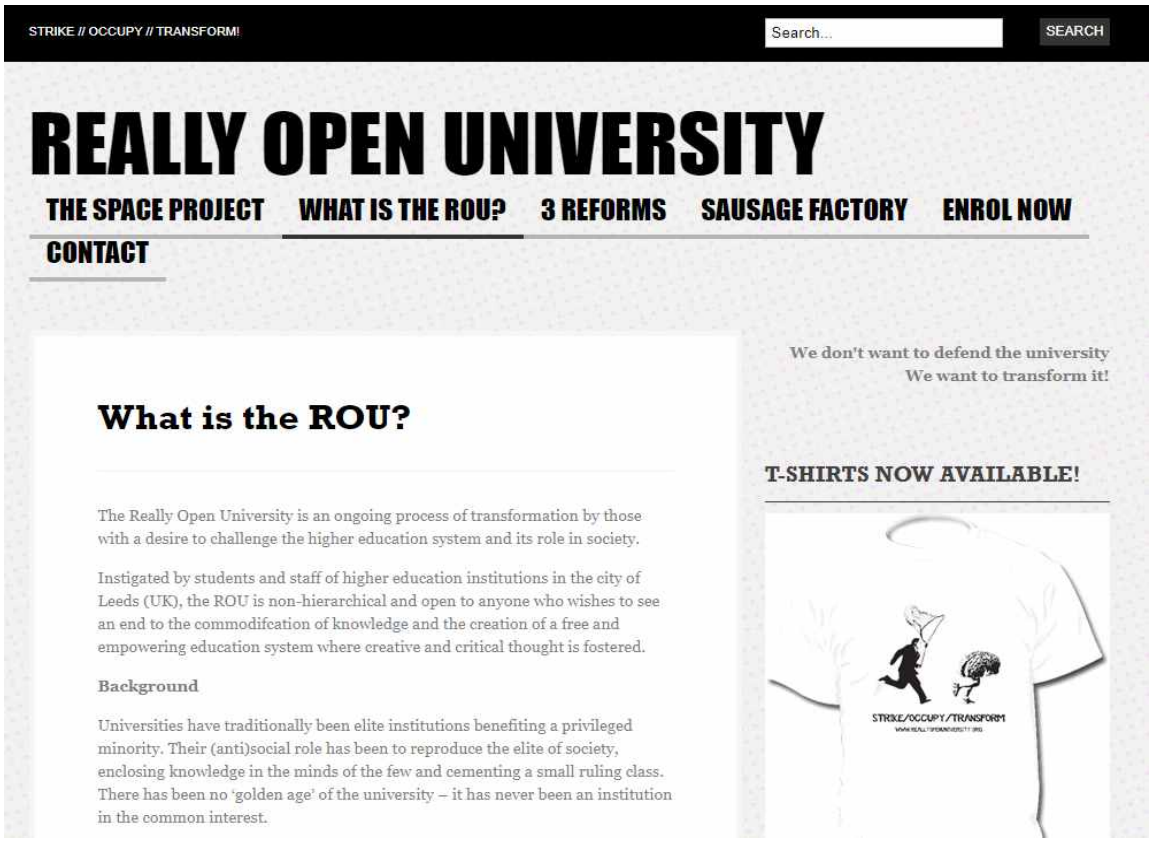
- 이곳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예를들어 사회적인 이슈, 금융관련 주제, 협동조합 설립 등 저명한 언론인, 사회활동가, 교수 등이 강사로 강좌를 열고,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시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학습장소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논의되고 있다.

❷ ROU(Really Open University)

- ROU는 영국 리즈(Leeds)시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원하는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학교이다. 이 열린 대학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중의 열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을 원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 영국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를 위한 집단 지성의 장이었다.그러나 최근에 고등교육은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지성들의 의식이 변화를 이끌어낸 교육 현장이다.

- ROU는 대중을 위한 워크숍이나 강연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학습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인데, 단순히 강연이나 워크숍 등 모임을 위한 공간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사람간의 만남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게 특징이다.



4) 영국의 평생교육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정부는 최근 여왕이 의회에서 포로나 19시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면서,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 이는 곧 영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방안을 평생교육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등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지하고 있고, 참여율 저조 등의 문

제를 해소하는 등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책 발표를 통해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숙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재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21. 1월에 고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직무역량 및 직업교육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백서를 발표하였는데 직무역량 및 직업교육제도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사항을 담고 있다

- '직업 역량(Skills for Jobs)'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백서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발표한 '평생역량보장(lifetime skills guarantee) 정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담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기업과 고용주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편하고,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직업기술 자격의 신설과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영국 교육부 : 직업역량 - 기회와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 Skills for Jobs : Lifelong Learning for Opportunity and Growth)

- 백서에는 영국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이후를 계획하고 EU 탈퇴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학습을 장려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평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국 정부가 대학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인식 하에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을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또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교사와 강사 관리, 학습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제공을 통해 기술 습득 외에 생산적인 삶을 계획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평생교육에 앞선 영국도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백서도 발간하고 여왕의 적극 지원발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의 진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3. 덴마크

1) 덴마크의 교육

○ 덴마크의 교육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다, 교육학자 니콜레이 그룬트비는 황폐화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 모두가 교육에 참여해야 함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 덴마크는 지식전달 교육보다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학습을 지향하는데, TV에서도 행복지수 1위 국가로 소개되는 등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의 근원은 아마도 교육에 있지 않을까 싶다. 교육학자 그룬트비 또한 시민의 책임과 민주적 책임에 맞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국민교육 정신이 덴마크의 핵심적 교육철학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 덴마크 교육의 특징은 다양성과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인데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이다. 이는 다양성에 기초한 덴마크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학습자는 제각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다양성을 반영한 형태의 학교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 덴마크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지식과는 반대되는데 살아있는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곧 자기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교육하고 학습하는 데 중점이 있다.

2) 덴마크의 평생학습

○ 유럽의 평생학습은 대부분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했는데 덴마크 또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평생학습은 정

신의 서로 같다. 덴마크의 교육제도는 민주주의적 복지주의 모델로, 학습의 영역을 사적으로 보지 않고 공적인 것이기에 모두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전제된다. 이러한 사상은 성인 대상 평생학습 제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덴마크에는 어느 때라도 자신의 학력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학제가 마련되어 있다,

- 덴마크 정부는 2002년 평생학습을 통한 국가발전의 전략을 세워서 국민이 원하는 학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을 통해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3) 덴마크의 평생교육기관(시민대학)

○ 시민대학의 시초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농민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44년 농민들의 손으로 세워진 덴마크의 평민대학이라고 불리는 포크 하이스쿨이다.

- 덴마크는 성인의 절반이 시민대학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고 100여개가 넘는 시민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시민대학은 정규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학력이나 나이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입학하여 자신들의 원하는 과정을 학습하며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 덴마크의 시민대학은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 덴마크는 세대 간 교육 및 소득격차가 적은 나라인데 이것은 바로 평생교육 시스템이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 시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덴마크의 교육철학을 실천함과 동시에 북미,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확산시켜 왔다.

❶ 평민대학(folk high school)

- 평민대학은 덴마크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전통(Folkeoplysning)에 기초한 교육기관으로 일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덴마크의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평민대학은 교육 기간이나 내용, 활동 등에 따라 '환경 전문 평민대학', '연극 음악전문 평민대학', '운동 전문 평민대학'과 같은 특정 분야나 주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평민대학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화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 덴마크의 평민대학은 대학별로 각각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각 특성화된 분야에 집중함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자질과 삶의 방향성 등에 대한 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은 비록 정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어와 같은 기초 교육 강좌부터 텃밭 가꾸는 방법과 같은 생활강좌, 취미 관련 문화예술 강좌뿐만 아니라 '유로 위기'나 '이민자 문제' 등과 같은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Folk high School, 평민대학 >

- 설　　립 : 1884년
- 위　　치 : 덴마크
- 학 교 수 : 약 70여개
- 과정분야 : 음악, 예술, 디자인, 종료, 철학, 문학, 심리학, 스포츠 전문과정 등
- 운영원칙 :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 홈페이지 : https://danishfolkhighschools.com/

❷ 오덴세 지역의 평민대학

- 오덴세 지역의 평민대학은 1851년 크리스텐 콜에 의해 세워졌다. 오덴세의 평민대학은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평민대학 중 하나로, 덴마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평생학습 기관이다.

- 오덴세 평민대학의 교육과정은 문학, 철학, 종교, 심리학 등을 연구하는 인문 분야와 실용 과목으로 나뉜다. 평민대학에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출신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 오덴세의 평민대학의 주요 특징은 바로 학생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서로 다른 배경과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배우며 상대방의 삶의 방식이나 입장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본이 되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 오덴세의 평민대학이 덴마크 전체 대학을 대표하는 유형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가 존재하며 서로 존중하며 학습하는 평민대학의 방향성은 덴마크 전역의 평민대학의 일관성이 있다.

< Folk high School, 평민대학 >

- 설　　립 : 1884년
- 위　　치 : 덴마크
- 학 교 수 : 약 70여개
- 과정분야 : 음악, 예술, 디자인, 종료, 철학, 문학, 심리학, 스포츠 전문과정 등
- 운영원칙 :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 홈페이지 : https://danishfolkhighschools.com/

❸ 덴마크 민중대학(Højskolernes)

-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민중대학은 덴마크의 교육학자인 그룬트비히(Grundtvig)가 직접 세운 학교로 유럽 주요 국가들과 독일의 시민대학의 근원이다.

- 이 민중 대학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주의, 상호주의 교육을 추구하면서 농민과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교육'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중대학 또한 공교육 제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4개월 정도의 합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덴마크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덴마크 전역에 걸쳐 7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만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입학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고 시험이나 자격제도 등은 없지만, 대학 진학시 활용하도록 수료증을 수여하며, 최신의 직업교육 또한 실시하는 등 전인적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Grundtvigs Højskole, 민중대학 >

- 설　　립 : 1856년(Grundtvig가 직접 설립)
- 위　　치 : Hillerød(코펜하겐에서 35km거리)
- 학사과정 : 장기코스와 단기코스로 운영
  - ▸장기 코스(3~4개월, 9월~3월 운영)
    - ·모듈화된 종합 프로그램 운영(음악, 미술, 체육, 사진, 공연예술, 영화, 정치, 저널리즘, 글쓰기, 철학, 문학 등)
  - ▸단기 코스(1주, 여름학기 운영)
    - ·철학, 합창, 미술 등 특별 주제
- 수강료 : 주당 1,580덴마크크로네(약28만원)
  - ▸숙박비와 식비 포함, 유럽의회에서 비용 지원
- 수강인원 : 장기코스 기준 70~100명
  - ▸홈페이지 : https://grundtvigs.dk/

4) 덴마크의 평생교육 현황 및 시사점

○ 덴마크 성인의 절반 가까이는 지속적인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하면서 졸업 후 멈추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이 미래 교육을 토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변화의 움직임 속에, 덴마크에서도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기업에서도 추가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 기업에서 원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아 학습과 훈련과정 수료 후 고용으로 연계되기 위해 스스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덴마크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새로운 자격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또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대안은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물론, 덴마크의 성인 모두가 직업적인 이유로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고 자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Ⅳ. 호주의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

1. 호주의 평생교육 필요성 및 방향

1) 호주 평생교육의 필요성

○ 호주에서의 평생교육은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듯 국민 누구나 원하면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주는 교육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 호주는 전통적인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이 생기게 되면서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라 그에 다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 기업들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호주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때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호주는 사회통합과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시대와 지식 경제 시대의 도래로 학습에의 접근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더욱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 호주의 교육은 우리나라와 다소 다르게 직업훈련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데,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과정은 성인교육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평생교육의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평생교육의 방향

○ 호주는 평생교육의 정책이나 평생교육을 위한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호주의 평생교육 수준이 낮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 호주에서 평생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함과 동시에 세계 정세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호주의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호주는 모든 국민이 기초능력을 갖추도록 학교와 일터에서의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그렇기에 직업교육이 호주의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실제 평생학습은 주로 직업교육 훈련이 중심이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력이 창출되고, 기업은 숙련된 인적자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이 다르고, 취업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호주의 경우는 호주 전역에 걸쳐 통일된 국가자격 체계로 어디서든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 이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학습한 결과는 통일된 국가자격으로 평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TAFE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기관들 사이의 교차 학습이나 어느 기관에 자격을 취득했든 간에 자격 인정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학습기관과의 교차 학습이 가능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우에도 학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교육기관 변경이나 이동 등 지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 호주 평생교육의 방향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원하는 누구나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호주의 평생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훈련 교육이 차지하는 바가 크고 직업능력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이나 기업이 원하는 숙련된 인력을 키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2. 호주의 평생교육 기관

(1) TAFE

1) TAFE 개념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은 평생교육 실행기관으로 호주 평생학습 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며 호주 전역에 펼쳐져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과 계속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TAFE는 야간교육원(evening college), 지역사회교육원(community college), 지역 성인 교육센터(community adult education center), 이웃학습센터(neighborhood learning center) 등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며, 비정부, 비영리 조직 혹은 기관이며 지역사회가 운영의 주체가 됨. 호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NSW주의 경우, 총 130개의 평생 학습기관들이 주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음

○ TAFE는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인 대상 평생교육 기관이며, 학습 수료 후 취업으로 연계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TAFE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은 기업의 요구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하고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이나 영국의 폴리테크닉(대학 수준의 종합기술전문학교), 다른 나라의 기술학교나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나 미국 대학의 파운데이션 코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호주의 TAFE에서 학습이 종료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 중심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공도는 서비스를 통해 직장에 다니면서 훈련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TAFE에서는 직업 교육 및 연수(VET,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주정부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

- TAFE의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은 기업이나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된 인력으로서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쉽고, 학생이 원하면 상위 과정(학사 학위 등) 코스를 위한 대학입학 등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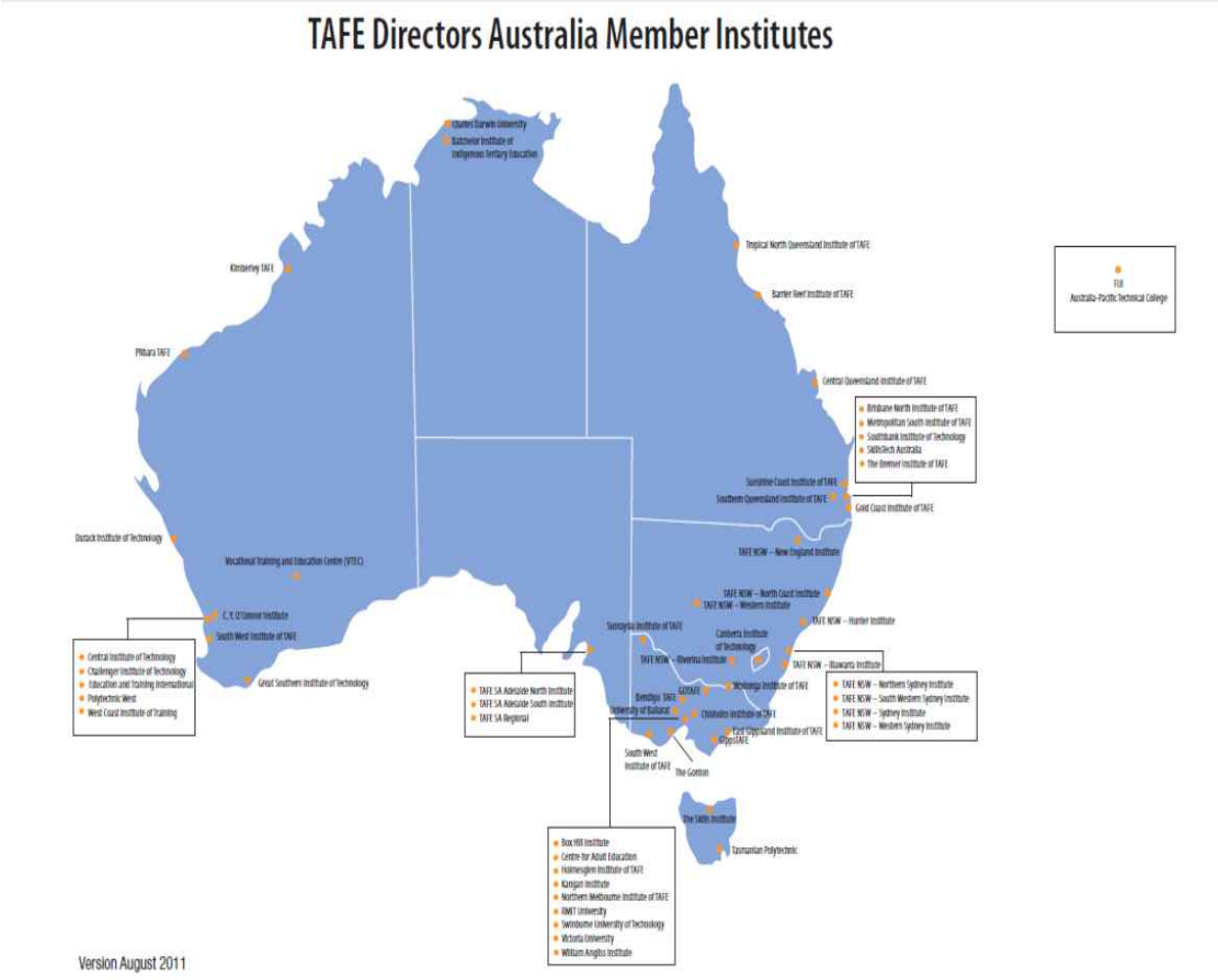
2) TAFE 특징

○ 호주에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려 하고 직업을 구하려고 한다면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인 TAFE의 과정을 수료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개방성은 물론 탄력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학습자들을 위한 대부분의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2년제 전문대학이나 일반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호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TAFE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유사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TAFE에 입학을 할 수 있다. 대학진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TAFE에서 기술을 빨리 습득하여 남들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 후 대학진학을 원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다.

○ 호주에는 주마다 TAFE가 있고, 각 주에는 지역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에서 가까운 캠퍼스를 활용하여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TAF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 특히 TAFE의 평가는 기업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데, 평생교육기관인 TAFE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이 기술습득과 실제적인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바로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수료 후 고용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3) TAFE의 학위과정

○ 호주에서 TAFE 과정의 대부분은 학위가 아닌 자격 과정이 대부분이며, 보통의 경우 15명에서 최대 30명까지의 학생이 한 반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습 위주의 수업이 가능하고, 현장 실습과 교실에서 학습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학처럼 강의와 토론(tutorial)도 함께 진행하며, 과제를 작성하거나 토론, 실습등에 의해 성적을 평가한다.

- TAFE에서 수료증 과정을 마친 후에 본인이 원하면 고등 과정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디플로마 과정을 하면서 대학으로의 편입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라 대학을 가는 것이 치열하지도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중에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변에 시선에 의해 차별화되지 않는 것은 큰 장점이다.

구분	과정	내용
수료증 1급(Certificate Ⅰ)	보통 3개월~6개월 과정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과정
수료증 2급 ~ 3급 (Certificate II & III)	보통 6개월 ~ 1년 과정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교과 과정 학습
수료증 4급 (Certificate IV)	보통 1년 과정	학생들의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학습 능력, 업무의 평가 및 분석 능력, 지도력 포함
준학사 (Diploma)	보통 1년 ~ 2년 과정	업무에 대한 경영 능력과 판단 능력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습득 목적. 한국의 2년제 전문대학 학위에 준함
고급 준학사 (Advanced Diploma)	2년 ~ 2년 6개월 과정	전문인 단계로써 자기 계발, 기본 원리 원칙을 토대로 한 이해력과 응용력, 고도의 기술과 기획에 중점. 준학사 학위보다 한 단계 상급 과정

4) TAFE의 역할

○ TAFE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전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재를 숙련시키기 위한 기능과 훈련과정을 마친 후 기업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TAFE는 호주에서 그간 제공해 온 전통적인 프로그램 외에 더 다양하고 새로운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수요와 원하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TAFE 역할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것은 TAFE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호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호주의 경제 성장을 위한 역할 또한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호주의 국민들은 누구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TAF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바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되고 수료 후 원하는 분야의 취업도 가능할 수 있는데,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국민들은 물론 모든 호주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 호주의 '국가 직업교육 연구센터'(NCVER: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는 매년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수료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문맹이나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초적 단계로부터 지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TAFE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숙련된 기술을 통해 직업을 가지게 되는 과정들을 발표하고 있다.

-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을 찾고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TAFE에서의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을 제공하고 훈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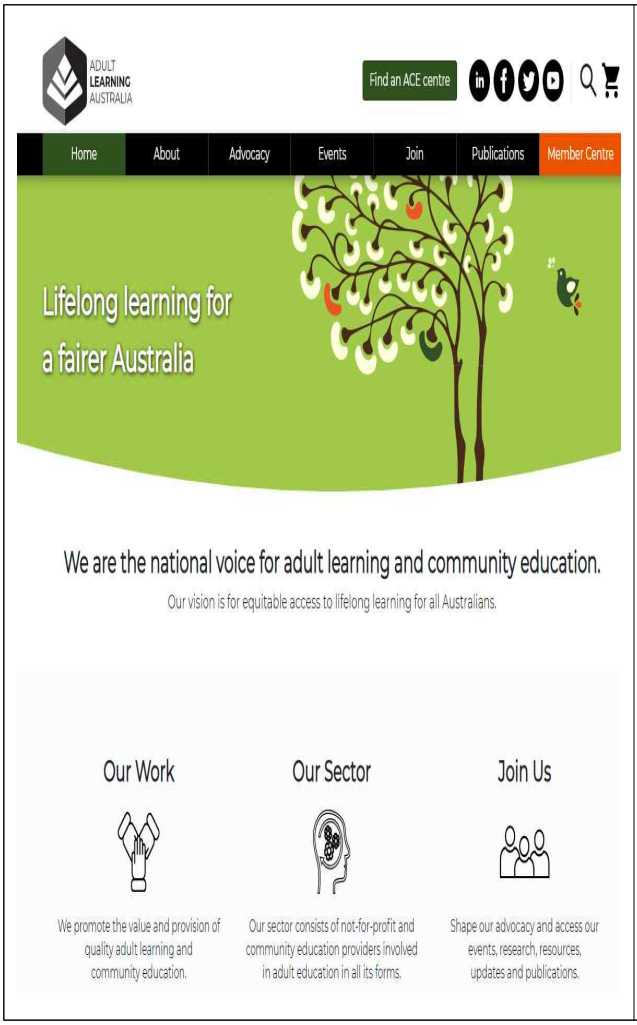
(2) 호주 성인교육(ALA : Adult Learning Australia)

○ ALA는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의 모든 주와 지역에 위치하고, 비영리 단체로 성인 학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1960년 설립 이래 계속해서 운영되고

○ ALA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과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상담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 ALA에서는 호주의 성인 학습 주간(Adult Learners' Week)을 운영하는데 이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국제적인 행사 중의 하나인 축제이다. 매년 개최되는 축제는 평생학습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 등을 구성하고, 성인 학습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 성인 학습주간은 또한 호주의 현재 성인 학습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난 25년 이상 추진해왔다.



- 또한, ALA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례행사를 개최하고, 호주 성인학습뉴스레터 발간과 컨퍼런스 개최, 성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향상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3. 호주의 직업능력개발

1) 기술의 숙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평생학습은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가를 양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은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원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인데 교육훈련 제도는 다양하지만, 평생학습과 연계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직업훈련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숙련하여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술 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기술을 숙련한 학습자들에게 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수여하는데 이 자격증은 호주 전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고 자격기준 또한 등급별로 똑같이 취급되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2) 호주자격제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 호주에서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은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ET)과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TAFE는 호주 평생교육 기관의 대표기관으로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s)라고 하는데 TAFE도 RTO 중의 하나이며, 직업교육의 품질을 담당하는 호주의 품질기구(ASQA,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의 인증을 받아 인가된다.

○ 호주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수후 자격을 취하도록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주의 자격제도는 호주 전역에서 일관성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호주의 자격 기준 체계,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level	Secondary school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igher education
10	-	-	Doctoral Degree
9	-	-	Masters Degree
8	-	Graduate Diploma	Graduate Diploma
	-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Certificate
7	-	-	Bachelor Degree
6	-	Advanced Diploma	Associate Degree
5	-	Diploma	Diploma
4	-	Certificate IV	-
3	-	Certificate III	-
2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Certificate II	-
1		Certificate I	-

Image: On Target Work Skills © 2018

○ 호주에서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는 학습자의 경우 발급되는 모든 자격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 중고등 교육의 자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훈련을 마친 학습자에게 별도의 시험 또는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부여받는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자는 별도의 국가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자격기준 체계는 자격 1부터 10까지의 레벨이 있는데 훈련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능력에 도달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아래 단계 수료자는 다음 단계의 자격을 다시 학습할 수 있고 자격증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는 물론 특별한 조건 없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 다만, TAFE에서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고 8레벨까지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일반대학에서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 TAFE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관리되는데, 호주의 TAFE에서는 기업체의 니즈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을 통해 제대로된 능력을 갖춘 숙련된 수료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 호주에서의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 학위와 자격을 구분하는 자격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AQF(Australian Quality Framework)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QF의 학위, 자격제도〉

- LEVEL 1 - Certificate I
- LEVEL 2 - Certificate II
- LEVEL 3 - Certificate III
- LEVEL 4 - Certificate IV
- LEVEL 5 - Diploma
- LEVEL 6 - Advanced Diploma, Associate Degree
- LEVEL 7 - Bachelor Degree
- LEVEL 8 - Bachelor Honours Degree, Certificate Graduate, Graduate Diploma
- LEVEL 9 - Masters Degree
- LEVEL 10 - Doctoral Degree

Source: studyinaustralia.gov.au

LEVEL	학위 / 자격	직업교육(VET)	고등교육(HE)
LEVEL 10	Doctoral Degree		○
LEVEL 9	Masters Degree		○
LEVEL 8	Graduate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Bachelor Honors Degree	○ ○	○ ○ ○
LEVEL 7	Bachelor Degree Associate Degree		○ ○
LEVEL 6	Advanced Diploma	○	○
LEVEL 5	Diploma	○	○
LEVEL 4	Certificate Ⅳ	○	
LEVEL 3	Certificate Ⅲ	○	
LEVEL 2	Certificate Ⅱ	○	
LEVEL 1	Certificate Ⅰ	○	
Entry Level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 호주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호주 전역의 각 주마다, 도시마다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일관성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어느 주에서든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숙련자로 인정받게 되는 직업능력의 자격을 표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시사점 및 결론

1.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 학력주의의 완화적인 측면

○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 상위를 차지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학 진학을 해야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쟁사회다.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에서도 이런 현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학력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호주의 인증제도와 유사한 학점은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의 심화된 학력주의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학력주의에 편승하는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학력 위주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대학 진학에 실패한 청소년의 또 다른 학위취득을 위한 역할 수행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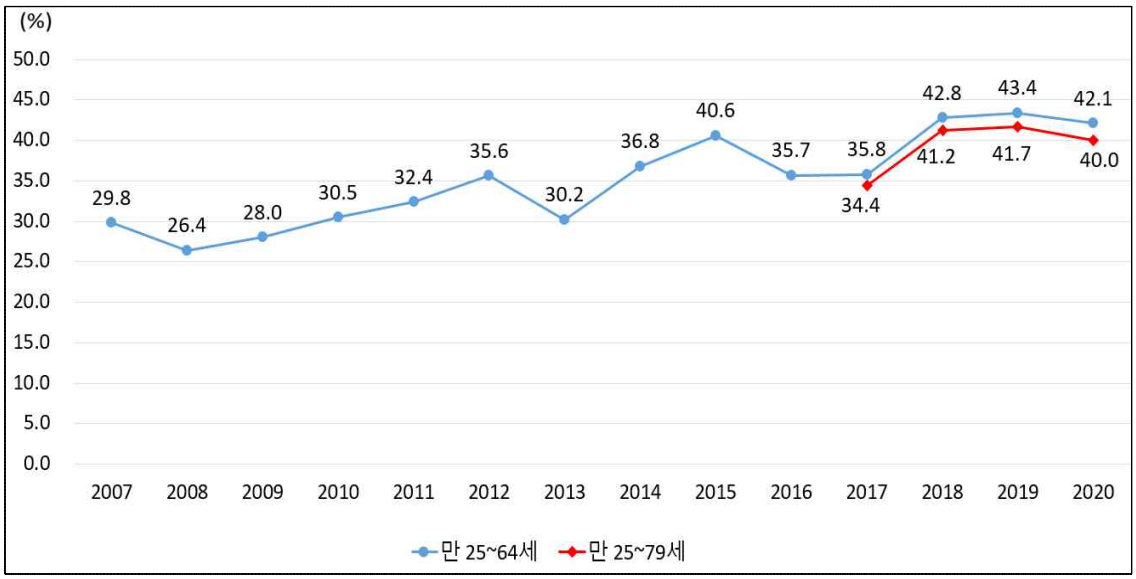
- 이것은 바로 학습의 특성과 상관없이 무작정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학력주의를 심화한다는 간접증거인 것이다.

2) 평생교육 기회의 부족

○ 우리나라의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작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평생학습 참여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별로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으로 개방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인 학습자 및 비정규 학생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호주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실행기관 외에도 RTO로 등록된 일반대학에서 성인이나 학습의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입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생학습 시설이 확대되었고 시민들이 지역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많아졌지만,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연도별 평생학습참여율,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청년층이(25~34세, 50.2%)이 노년층(65~79세, 29.5%)보다 높았고, 고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참여율(45.4%)이 저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참여율(29.7%) 보다 15.7%p 높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외국의 사례에서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학습을 제공받는 데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취약계층의 학습 참여율은 전체 참여율 40%와 대비해 볼 때,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가구소득을 총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을 취약계층으로 구분

○ 결론적으로,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훈련조차도 학습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전체 참여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새로운 학습 형태의 도래

○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2019년 말부터 전세계 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교육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80%에 가까웠었고 헌법으로 교육의 의무를 정하고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우리나라 문해율 99%,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인 70%, 평생학습 참여율은 40%를 훨씬 넘을 정도로 국민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유래없는 온라인 학습을 단행하고 전격적인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학생들과의 소통과는 별개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교 수업은 하지 못하는 데 반해 대부분 학생들이 사설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사태가 불가피하게 교육 혁신을 앞당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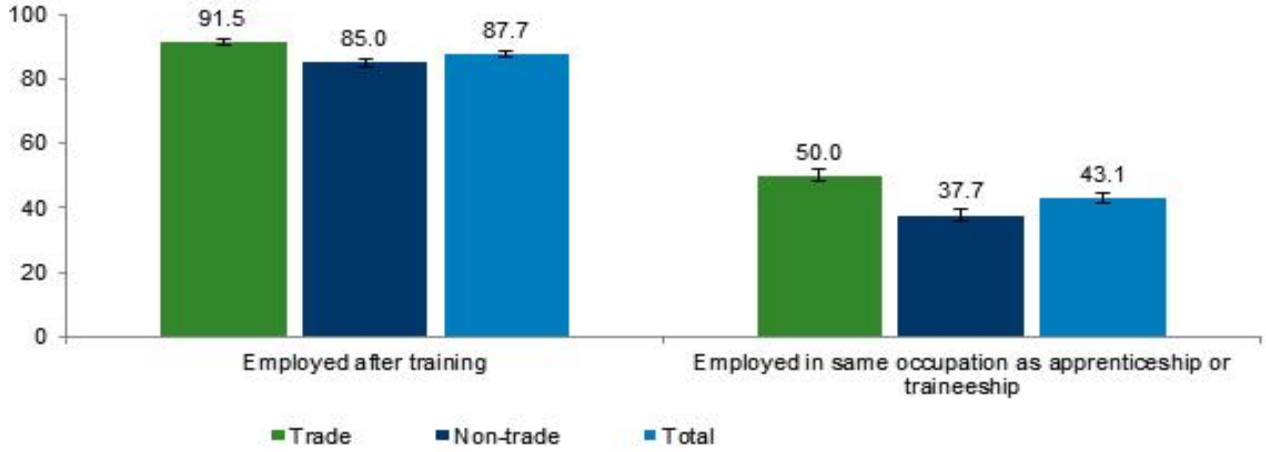
○ 우리나라 I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술혁신을 교육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비대면 학습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효과성 면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예전의 완벽한 대면시대로의 복귀는 힘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교육과 기술이 접목되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선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대면 수업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대면수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온라인 학습 등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나서서 공교육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온라인 학습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학생들은 물론 교사에게도 다양한 학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진정한 의미인 전 생애주기의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일과 학습의 병행

○ 유럽국가나 호주에서 살펴본 바로는 직업 훈련제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NCVER (National V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9) 자료에 따르면, 직업훈련 후 87.7%가 취업이 되었고, 건설분야 훈련생의 84.2%가 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것에 반해 비건설분야의 경우 59.9%가 취업이 되었다.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현황, 2019 (%)



<출처 : NCVER, Apprentice & Trainee experience & destinations 2019>

○ 호주에서는 Apprentice(도제제도)나 Trainee(훈련생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기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예도 있다고 한다.

- 도제제도를 원하는 사람과 그 제도를 이용하여 도제생들을 원하는 기업과 제대로 된 매칭을 통해서, 훈련생들은 이론 학습과 실무를 경험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임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도제 훈련 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맞춤형 교육훈련의 필요

○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개인의 노동 시장과의 원활한 연계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교육과 훈련의 구분을 둘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장도 인문 교양, 자기 계발의 학습적 차원에서의 학습수요와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구분될 수 있다.

- 학습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한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실시를 산업이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고, 개인의 자기 계발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동시에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러 한 질 높은 인적 자원들은 결국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교류 또한 추진될 것이다.

2. 결론(발전방안)

호주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살펴본 결과, 호주에서는 훈련과정에 있어 기업체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NCS)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세계의 정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요구를 교육할 수 있게 훈련과정에 반영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호주의 교육훈련 제도가 성공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호주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상중하로 분류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고학력주의와 학력주의의 차별에 반해 호주는 각각의 교육 영역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교육 품질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호주의 직업교육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의 실행기관으로서의 개방형 시민대학과 직업능력 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우리의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

○ 외국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인들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통해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 기금 등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생교육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누구나 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이나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예기치 못하는 세계 정세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한 고령화의 사회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기관도 다양하고 자격증 취득도 국가 자격증과 민간 사설 자격증 등 다양하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자격체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

- 직업교육 훈련 후 자격을 얻게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훈련을 통해 자격에 대한 업데이트가 행해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십 년 된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을 활용하며 살아간다. 물론 자격증 소지자의 의지에 따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증에 대한 관리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코로나19로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환경이 보완되고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양적 증가와는 별개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학습자들이 교육기관을 찾아갈 형편이 안되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제공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생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2) 멘토링 추진

○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 중에서 멘토를 선별하여 운영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수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규 학습자를 도우면서 본인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나아가 훈련기관의 강사로서 채용

이 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

- 다만, 멘토에게 적은 임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려면 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3) 민간 주도 시민대학등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 코로나 이후 훈련기관의 폐쇄 또는 유명 강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등 예상치 못한 세상에 당황하고 있을 때, 재빠르게 현실을 인지하고 변화의 세대에 맞추어 더 많은 학습과정을 개설하고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 많다.

- 정부기관은 물론 여러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만, 민간의 인기 있는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실적은 분명 저조할 것이다.

- 많은 수요를 끌어들이고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강좌보다 나은 환경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대학 등은 무료나 정부지원 보다는 개인이 수강료를 내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과정을 수료했을 때 받는 수료증은 국가나 기업에서 인정되는지 확실하지도 않다.

○ 유명한 강사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연계하여 자격인증체계를 확립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강의를 수료하고 심화 과정 등을 지속해서 이수한 후 국가나 기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을 통해 직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주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누구나 실천해 옮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유명 강사의 강좌를 들을 수 있고 과정에 대한 공신 있는 기관의 인증이 더해지려면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역할 강화 및 협력관계 구축

○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같은 무게 중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에서는 부처별 지원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국가차원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 아울러,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체계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평생교육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민간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왔음에도, 민간과의 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평생교육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다양한 학습 형태의 민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등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중앙과 지역단위 간의 평생교육 훈련 업무 연계가 정착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시설이나 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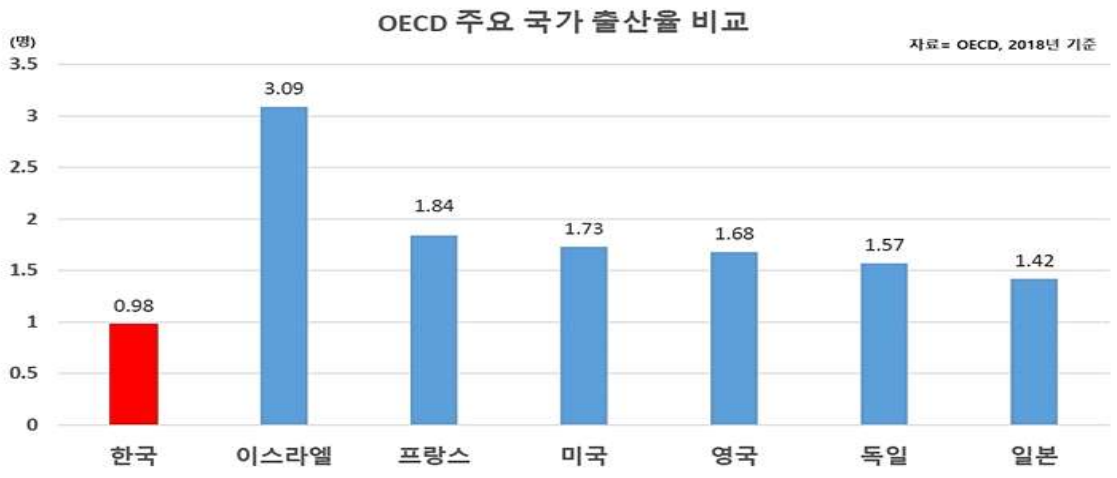
5) 교육훈련 평가인정체제 확립

○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나면 훈련 결과에 대해 수료증 등을 주어 공인해 줄 필요가 있다. OECD에서도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결과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호주의 경우 평생 직업교육 훈련을 국가자격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가 인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기관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혹은 기간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 등의 차별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들의 능률이 제고되고 학습 후 안정적인 수료증 획득을 통해 직업교육에서 취업으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대학 캠퍼스 활용한 교육현장 제공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8년 기준 0.98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이슈는 바로 대학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대학은 존폐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되어 심지어 가짜 대학생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충격적인 상황이고 정말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가 닥쳐온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도래된 것이다.



-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이 변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기다린다면 교육의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기에 이것은 단지 지방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은 대학의 무대를 넓히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을 평생교육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활용한 일과 학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에 빌딩의 의미로서의 대학을 고집할 수는 없다. 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좀 더 깊이 연계할 방법은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체육시설 또는 창업센터 등을 유치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지역사회와 공동운명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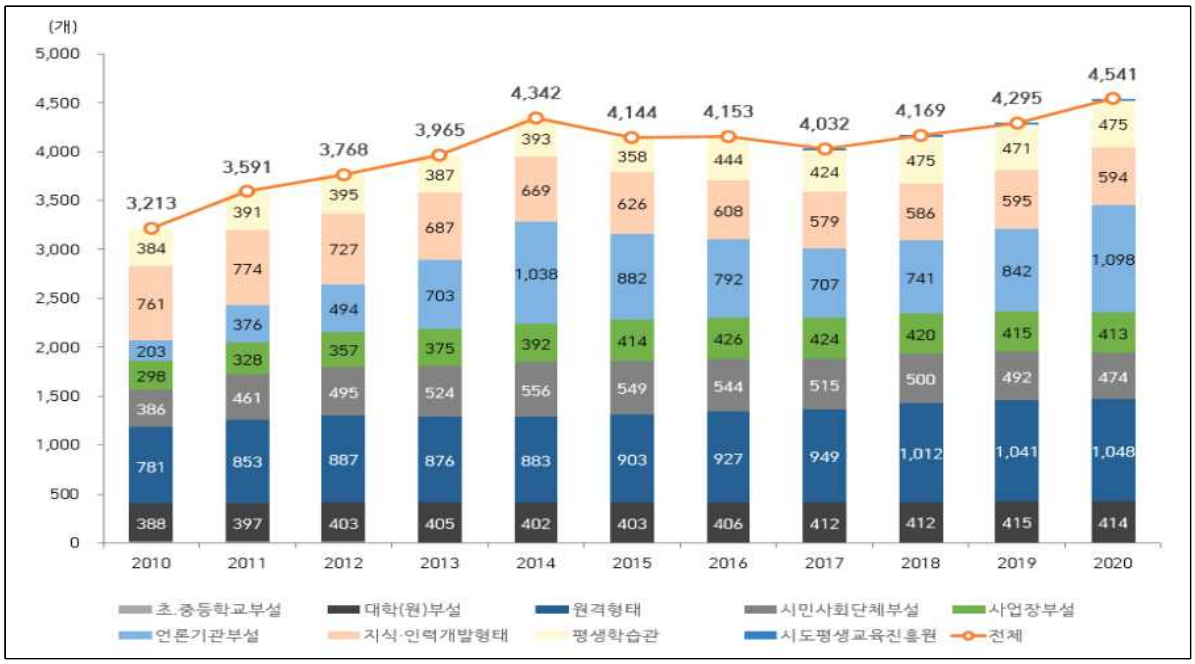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평생학습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근로자들의 교육을 추진할 때 평생학습과의 연계방안을 찾게 되면 평생학습을 통한 성인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의 누구나 편한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개방형 대학, 공유 대학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온라인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다양한 '고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게 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위기의 지방 대학과 지역 사회의 평생학습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 우리나라는 최근 평생교육 참여율이 40%를 넘어섰고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의 저변화로 인해 평생학습기관들도 많이 설립되어,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평생교육기관 수는 4,541개로 전년 대비 246개(5.7%) 증가하였다.

-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 교육시설이 1,098개, 원격 평생 교육시설이 1,048개, 평생학습관이 475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 교육시설이 474개 순이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기관 수는 2,979개로 전체의 65.6%를 차지하여, 평생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관유형별 기관 수>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의 참여율이나 기관이 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료 후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수료증 등 인정해 주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일관성 있는 자격인증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시민대학, 전문대학, 일반 평생학습기관 등의 운영의 효율화 및 참여하는 학습자들 또한 수료 후 얻게 되는 인정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자격 조건에서 취업으로의 기회를 두드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또한, 코로나 이후 이미 멈춰버리거나 변해버린 것들에 대해 원상 복구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는 기업이나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흐름과 변화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도태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에 정부기관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이런 문제를 교육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취업하기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고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에게 유일한 대안은 평생교육일 것이다. 일과 학습의 병행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인턴십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유럽국가나 호주에서 잘 발달한 제도인 교육훈련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 회사에 다니면서 학습할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되는데, 호주에서는 기업과 훈련자 모두에게 교육훈련제도 신청을 받고 원하는 분야에 가서 계약기간 동안 실무를 익히고 학교에서 학습 또한 병행하게 된다. 더 좋은 것은 회사에서 피고용인으로 임금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제도이다.

- 회사는 모자란 인력을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얻게 되고 이 자금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 볼 이유도 없고, 또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훈련을 통해 숙련자가 되었을 때 기업은 판단해서 실질적인 고용을 하기도 하는데, 장점은 신규 직원을 뽑아 알려줄 필요도 없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숙련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기에 비용이나 시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또한 도제생의 입장에서도 무료로 실무를 익히면서 학습도 하고 임금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이익임에 틀림 없다.

○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평생학습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 나라가 발전할수록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이 필요한데, 대한민국헌법 제31조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유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과 문화적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고 이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자지단체마다 더 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MOOC(Masive Open Online Course)와 같은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계의 모든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에 제대로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모두가 누구나 함께 학습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각자의 인생의 좌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평생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배우고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보다 수준높은 그야말로 선진화된 나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참고 자료〉

Australian apprenticeships: trends, challenges and future opportunities for dealing with Industry 4.0(Phil Loveder,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7)

Apprentice and Trainee experience and destinations(2019, NCVER)

Trends in 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s(Geoff Gilfillan, Statistics and Mapping, Parliament of Australia)

호주의 도제훈련제도(Michelle Circelli , NCVER)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경기연구원, 2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2013, KOTRA)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위한 해외기관 사례(2016,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평생교육백서(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해외 평생교육사례(희망제작소, 2013)

평생학습사회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2, 교육부, 한승희 외)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 자유교육(2010, 송순재)

한-덴마크 평생교육체제 비교연구를 통한 평생교육자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령화와 평생학습(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기성, “호주의 중등 및 중등교육 이후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혁의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14권 2호, (2004)

〔기획특집-지식혁명과 평생학습〕 평생학습과 외국의 성공사례, 국회도서관보, 2004년 11월호

이정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동향과 시사점”, 『직업교육연구』, 제22권 3호, pp.223-238, (2003).

고려대학교 교육신문(‘21.4)

독일에서 배우는 일학습병행제(내일신문, ’21.5)

영국교육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주영한국교육원(http://www.koreaneducentreinuk.org)

http://www. study in australia.or.kr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통계청 사이트(https://kess.kedi.re.kr/index)
교육부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naver.com)

wikipedia (www.wikipedia.org)

EBS 다큐프라임